

# 펀드 플로우 위클리



김용구 Strategist  
yg.kim@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sebin2.kim@yuantakorea.com

## 미국은 우주로, 한국은 반도체 대형주로

### 주식형 펀드 순유입 전환했으나 강도는 미약, 차익실현·순환매 발생

지난주(5/25 ~ 5/29) 주식형 펀드(-\$36.7억 → +\$56.4억) 순유입 전환, 채권형 펀드(+\$199.4억 → +\$176.2억) 순유입 강도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견조. 다만 주식형 순유입 규모는 여전히 평균 대비 미약. 통상 미국 주식형 펀드의 유입을 주도하던 지수추종 ETF로의 자금 집중 부재. 이는 차익실현성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수급이 순환매로 이동한 결과로 판단. 미국(+\$57.3억 → +\$115.0억) 확대가 순유입을 주도했으나, 그 성격은 중소형주 및 산업재(우주)·소비재 중심의 순환매. 반면 일본(-\$63.9억 → -\$46.6억)과 EU(-\$20.3억 → -\$6.1억)는 순유출 지속. 일본의 경우 차익실현성 매물 출회가 원인. 지난주 월요일 니케이주수가 사상 처음 65,000Pt선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 및 한국·중화권 증시 휴장으로 인한 일본 증시 거래 집중으로 차익실현 매물 대거 출회. 한편 채권형 펀드는 2주 전 대비 강도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장기채 대비 단기채 중점 투자 펀드로의 순유입 우위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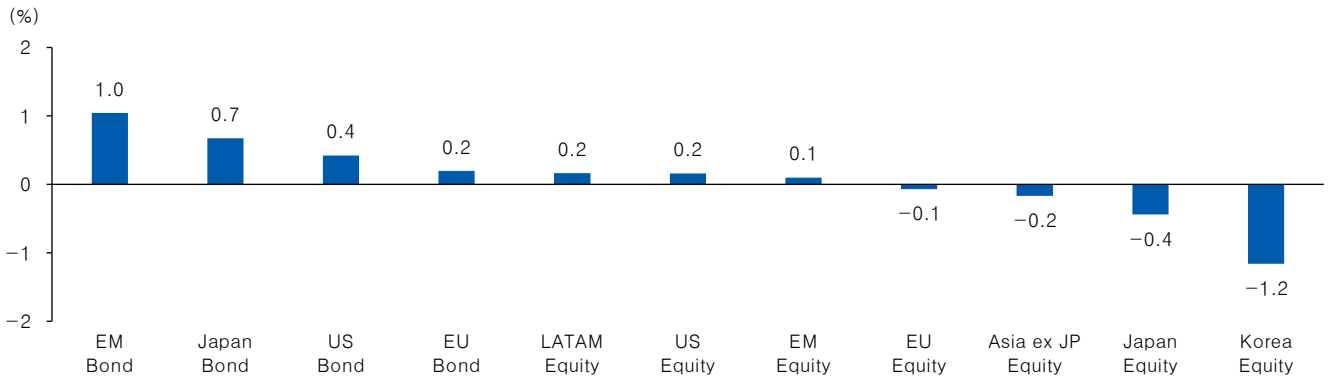
### AI/반도체 수급 순환매, 산업재(우주)·소비재·소형주 우위

섹터별 수급에서는 산업재(+1.4%), 경기소비재(+1.3%), 필수소비재(+1.0%)가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0.8%), 헬스케어(-0.6%), 금융(-0.6%), 원자재(-0.4%) 등은 순유출. Tech(+0.3%)는 순유입을 유지했으나 순유입 강도 축소세가 지속. 이는 AI/반도체 주도 수급이 신규 매수보다는 순환매 양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 특기할 만한 부분은 산업재 순유입이 우주항공 ETF에 집중되었다는 점. 이는 스페이스X IPO 압박에 따른 우주 테마 부각이 원인. 에너지 및 원자재 섹터 순유출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 안정화에 기인. 스타일별로는 중형 혼합(-0.005%)을 제외한 모든 스타일이 순유입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소형(가치 +0.21%, 혼합 +0.54%, 성장 +0.57%)이 대형(가치 +0.06%, 혼합 +0.09%, 성장 +0.16%) 대비 우위를 보이며 사이즈 로테이션 발생

### 신고가 속 한국 순유출, 반도체 초대형주 쏠림 심화

신흥국 중점 투자 펀드에서는 대만(+0.3%)이 순유입을 유지한 반면 라틴아메리카(-0.5%), 한국(-1.1%), 인도(-1.1%), 중국(-0.1%)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순유출이 발생. 특히 한국은 KOSP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펀드플로우는 순유출을 시현. 주요 원인은 반도체 내 대형주 쏠림. 지난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대형주 노출도가 높은 ETF로는 순유입이, 반도체 소부장 노출도가 높은 기존 반도체 ETF에서는 순유출이 발생. 외국인 판매도를 개인이 소화하는 형태의 AI/반도체 밸류체인 수급 집중은 유지되고 있으나, 자금 쏠림이 밸류체인 전반에서 초대형주로 한층 집중되는 차별화 국면 진입이 확인

그림 1. 글로벌 주식형/채권형 펀드 지역별 자금 유출입 강도 (주간)



참고: 유출입 강도 =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 Net Assets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표 1. 신흥국 지역 중심 투자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 강도 및 추이

지역별	1주 전 유출입강도(%)	순유입액 (십억 달러)					
		1주 전	월간	8주간 합	'25년 4분기	'26년 1분기	YTD
글로벌 신흥시장(GEM)	0.26	1.0	-1.8	2.5	8.5	29.5	32.2
대만	0.27	0.0	0.3	0.4	-0.2	-0.9	-1.0
라틴아메리카	-0.49	-0.1	-0.0	1.2	1.2	3.4	4.7
한국	-1.13	-1.9	0.2	-0.6	8.3	28.6	30.9
인도	-1.13	-0.2	-0.5	-1.4	-1.3	-2.3	-3.6
아세안	-0.45	-0.0	0.0	-0.0	-0.1	-0.1	-0.1
중국	-0.13	-0.1	-0.7	-0.6	1.0	-5.5	-6.2
신흥국 총합	-0.17	-1.1	-2.4	1.4	17.6	52.8	56.9

참고: 05/25~05/29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Investment Area 기준(자산의 75% 이상 투자해야 하는 Global Category 와 달리 해당 지역에 중점 투자할 경우 정성적 분류 가능)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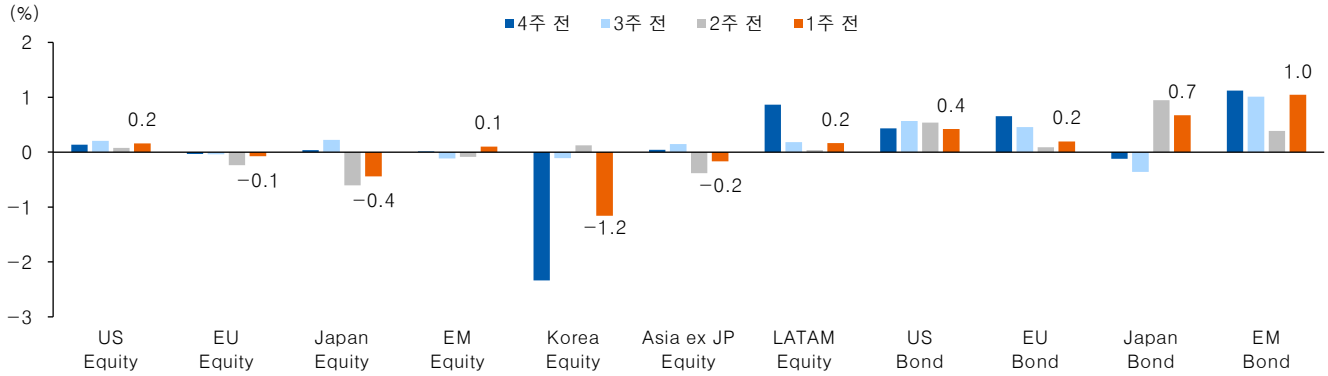
표 2. 글로벌 주식형 펀드 스타일 별 전주 자금 유출입 강도(좌) 및 유출입 현황(우)

(단위: %)				(단위: %, 조 달러)								
스타일	1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	YTD							
대형	0.06	0.09	0.16	대형 성장	0.16	0.02	0.44	0.13	66.3			
				대형 혼합	0.09	0.02	0.31	0.19	485.5			
				대형 가치	0.06	0.27	-0.04	0.07	89.5			
중형	0.09	0.00	0.03	중형 성장	0.03	-1.19	1.51	-0.20	4.6			
				중형 혼합	-0.00	0.13	0.18	0.01	13.4			
				중형 가치	0.09	-0.02	-0.04	0.08	32.8			
소형	0.21	0.54	0.57	소형 성장	0.57	0.14	0.28	0.28	1.6			
				소형 혼합	0.54	-0.60	0.04	0.12	14.2			
				소형 가치	0.21	0.29	-0.00	0.34	12.7			

참고: 05/25~05/29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Equity Style Box (Long) 기준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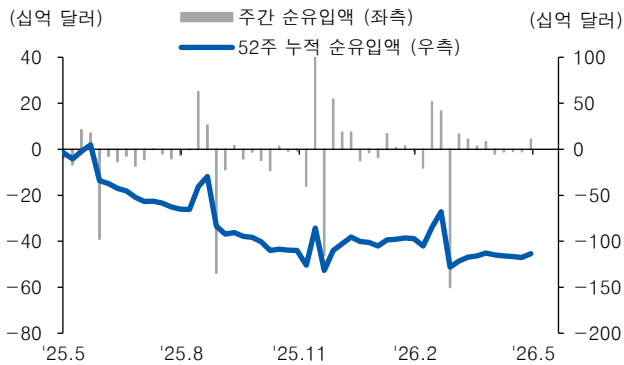
##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 지역별

그림 2. 글로벌 주식형/채권형 펀드 지역별 자금 유출입 강도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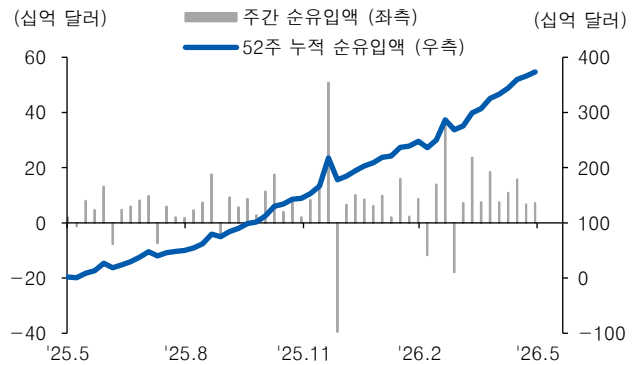
참고: 유출입 강도 =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 Net Assets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 US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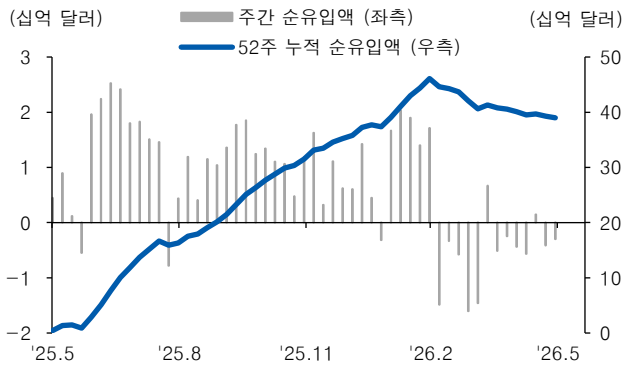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4. US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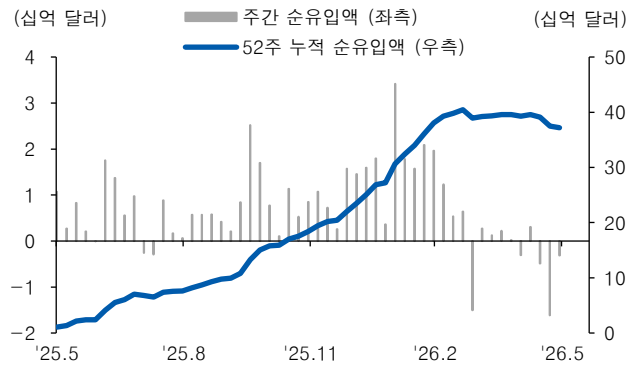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5. EU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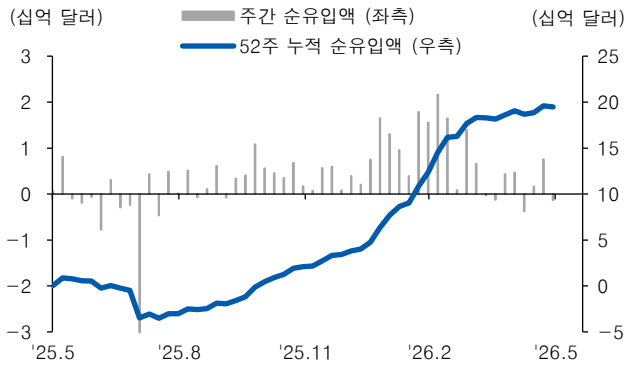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6. EU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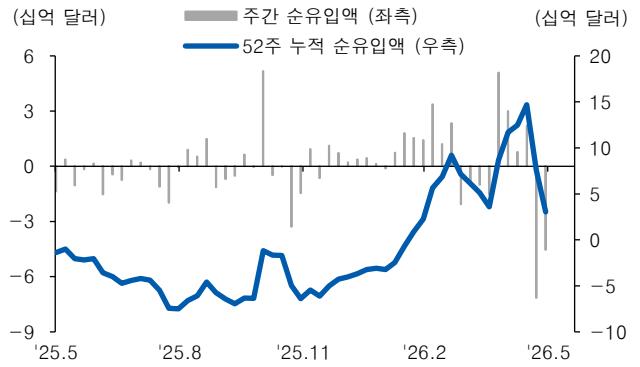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7. Japan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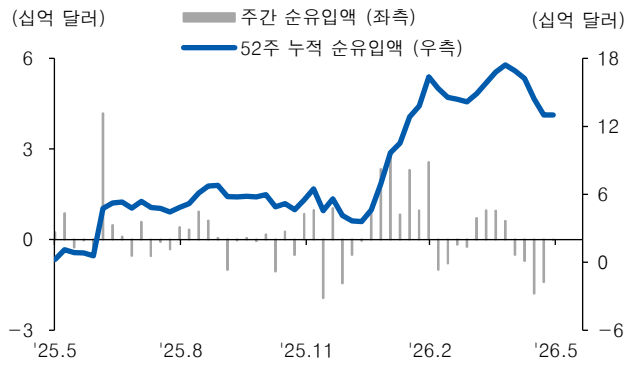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8. Japan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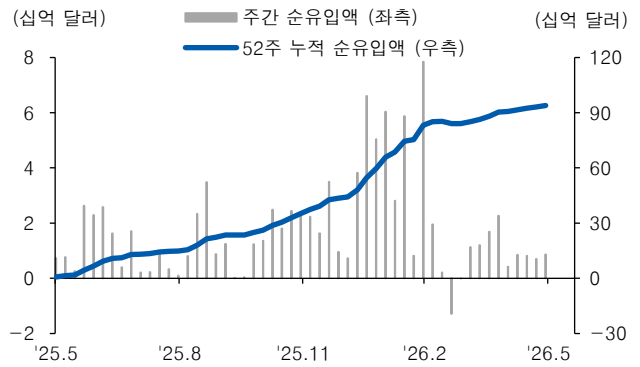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9. Emerging Market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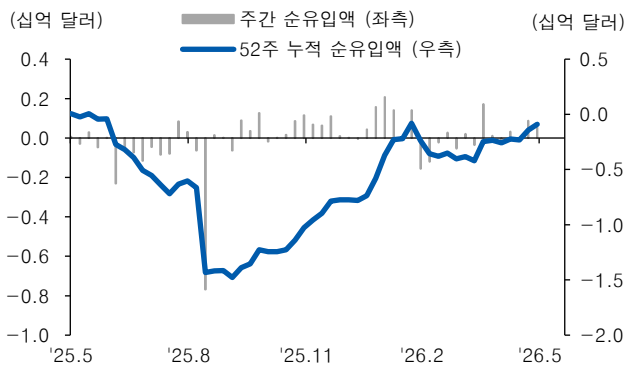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0. Emerging Market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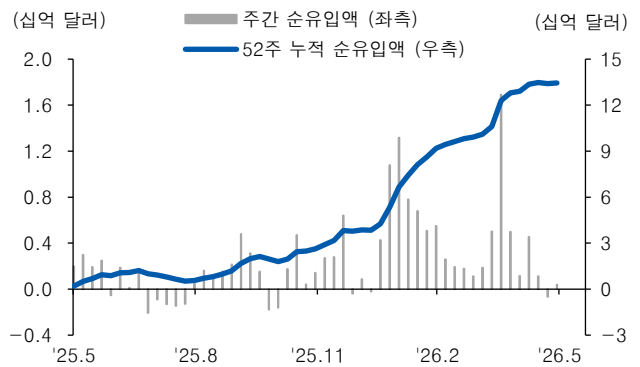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1. Latin America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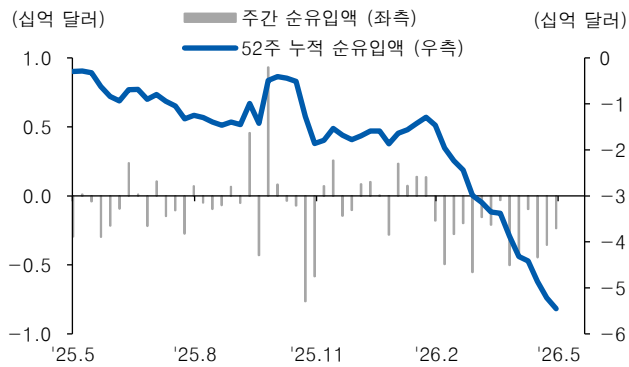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2. Latin America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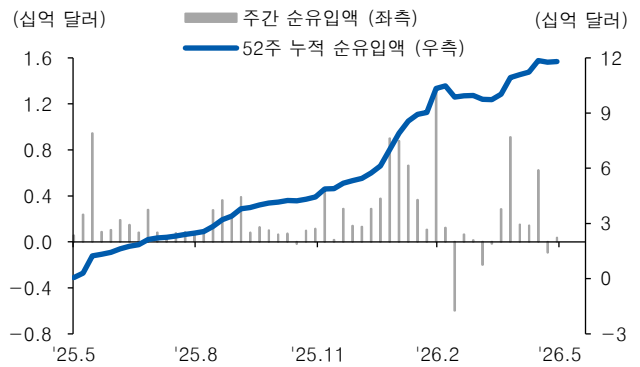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3. Asia ex Japan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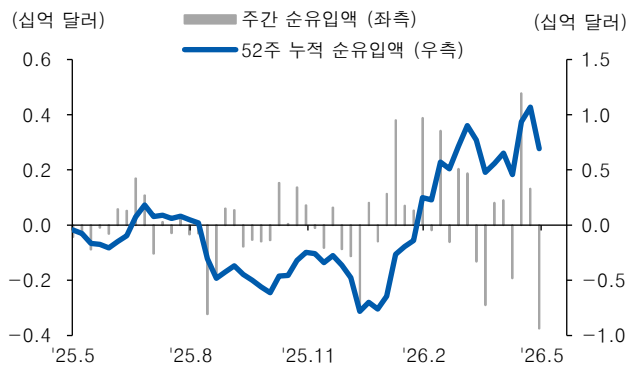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4. Asia ex Japan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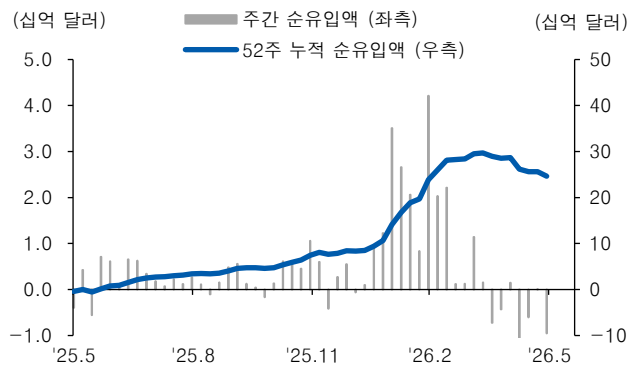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5. Korea Market Equit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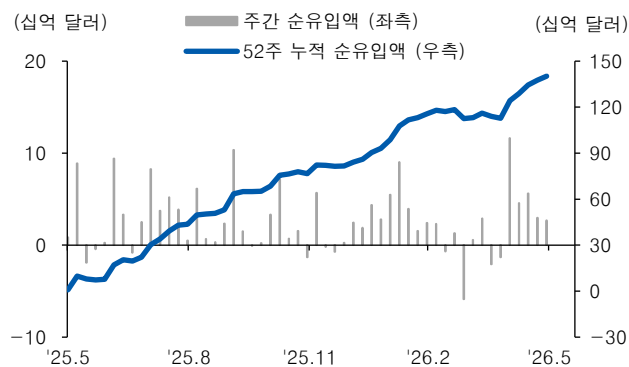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6. Korea Market Equit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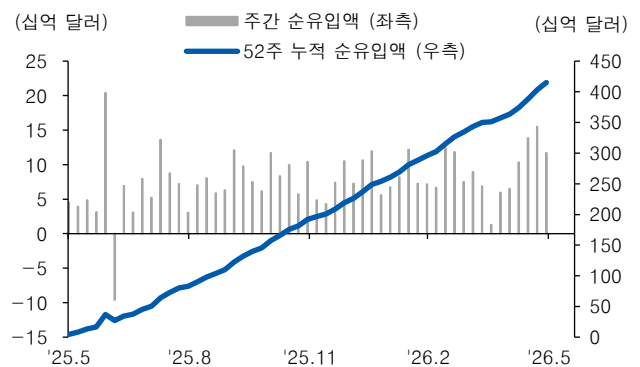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7. US Bond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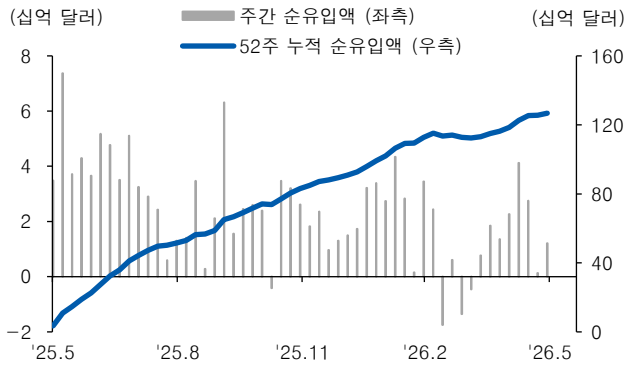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8. US Bond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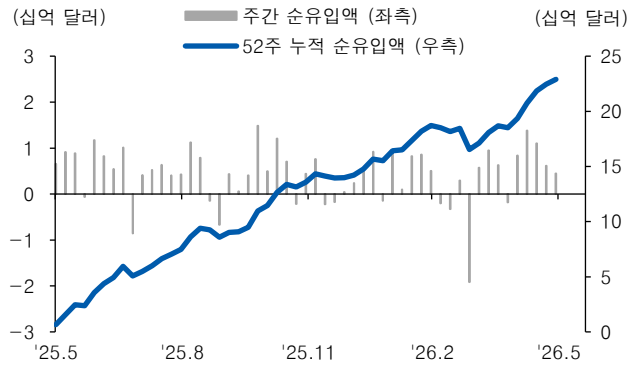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19. EU Bond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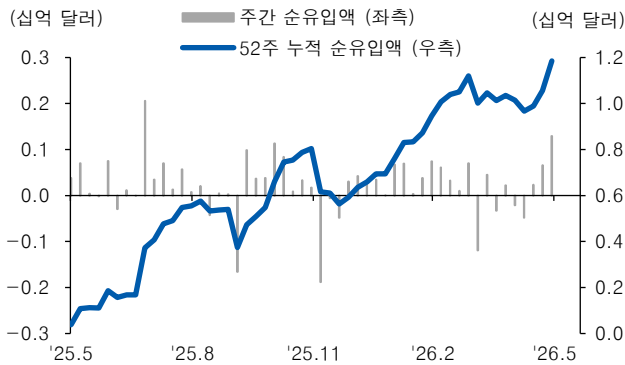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20. EU Bond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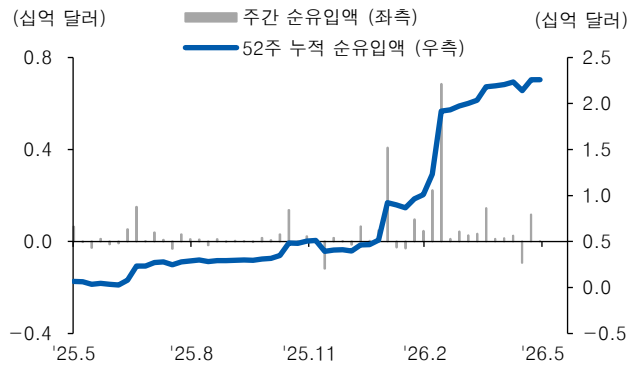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21. Japan Bond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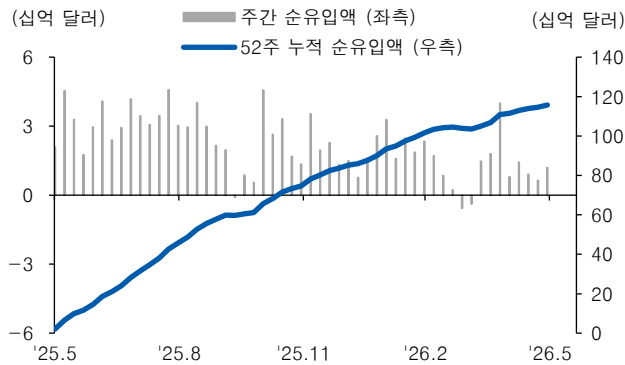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22. Japan Bond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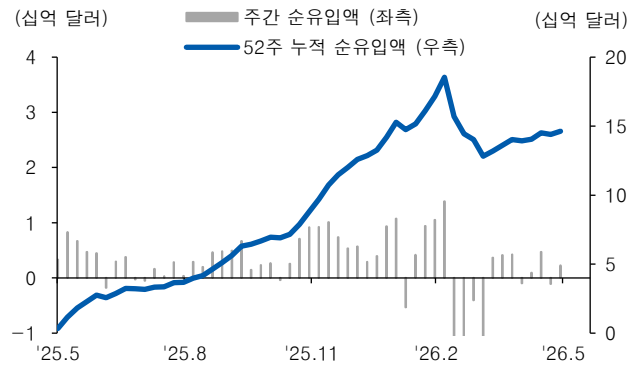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23. EM Bond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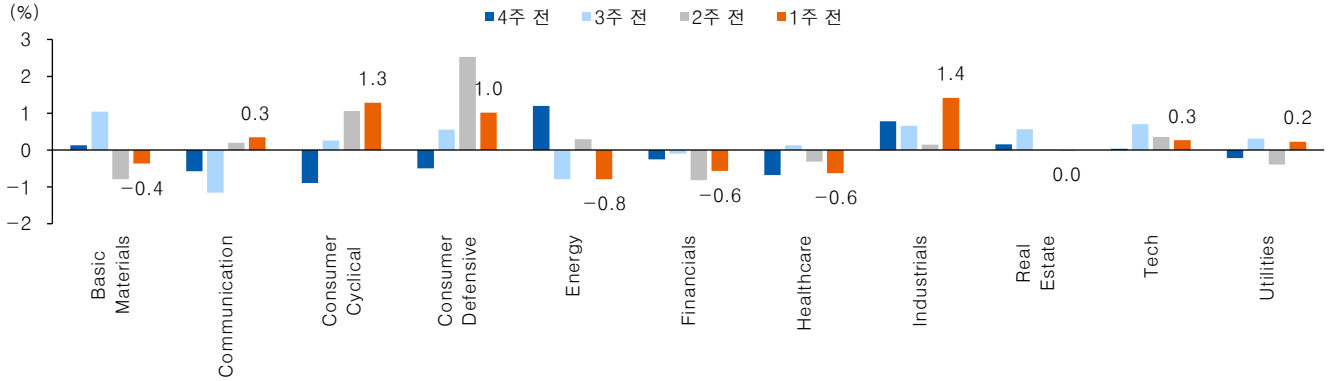
그림 24. EM Bond 순유입 추이 - ETF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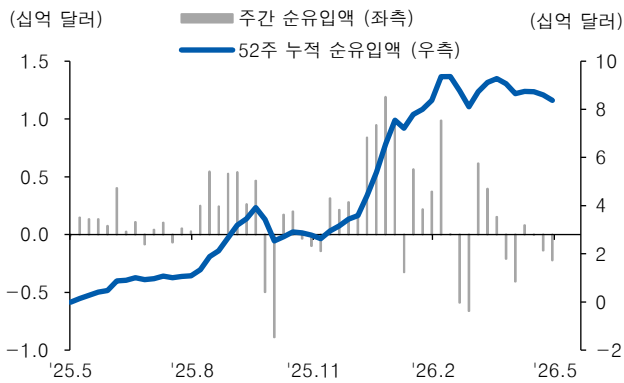
##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 섹터별

그림 25. 글로벌 주식형 펀드 섹터별 자금 유출입 강도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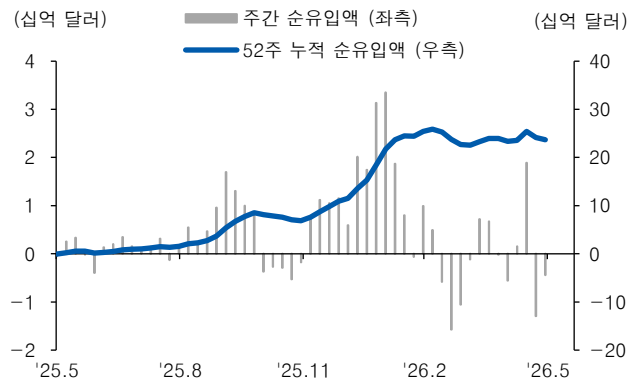
참고: 유출입 강도 = Estimated Fund-Level Net Flow / Net Assets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26. Basic Material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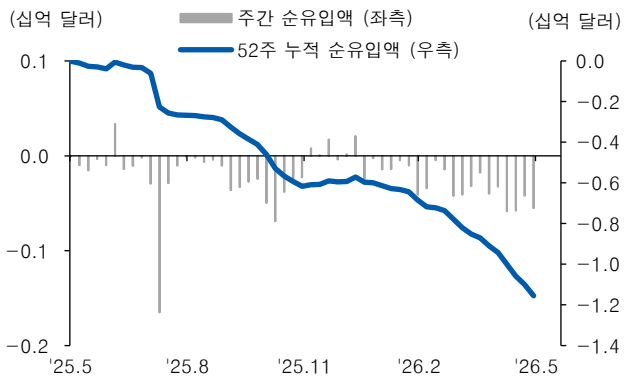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27. Basic Material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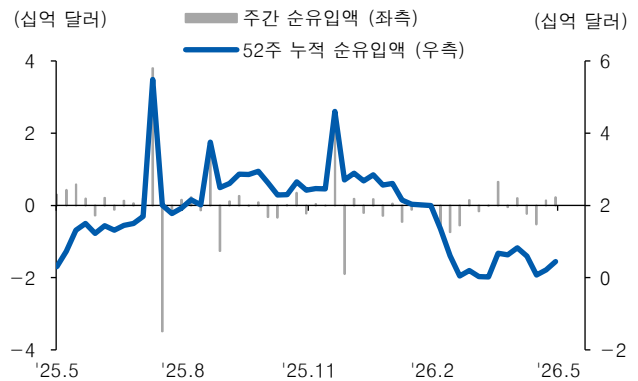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28. Communication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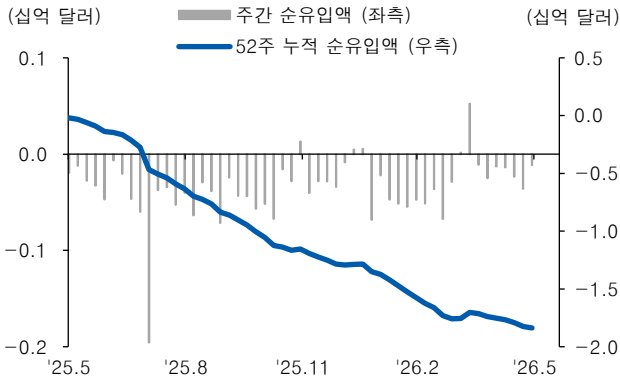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29. Communication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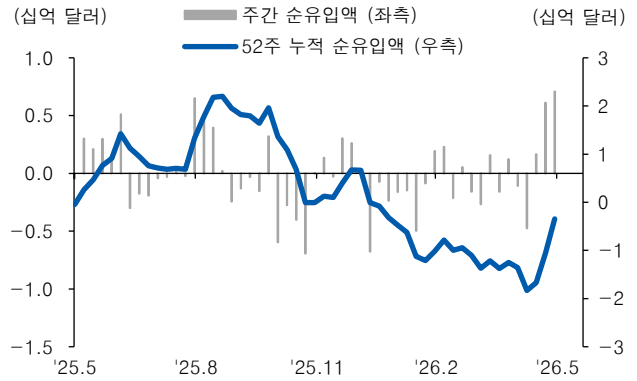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0. Consumer Cyclical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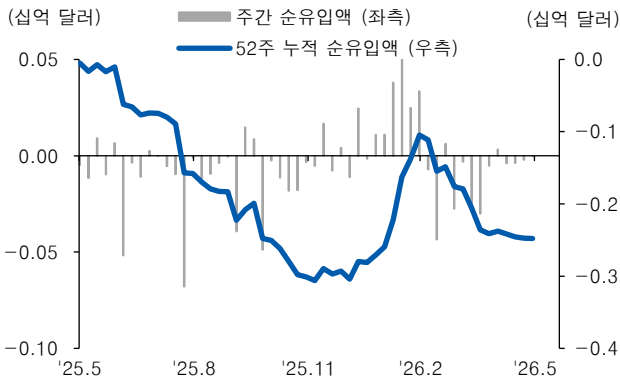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1. Consumer Cyclical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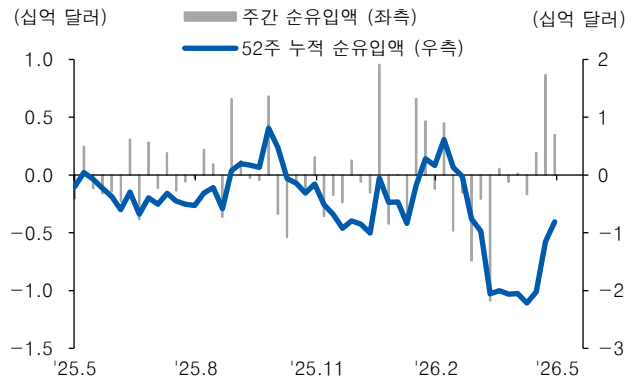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2. Consumer Defensive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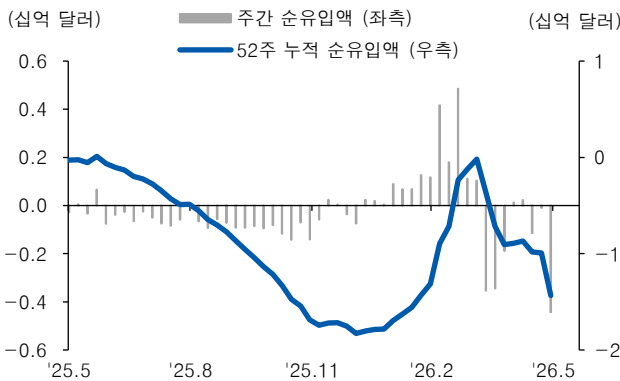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3. Consumer Defensive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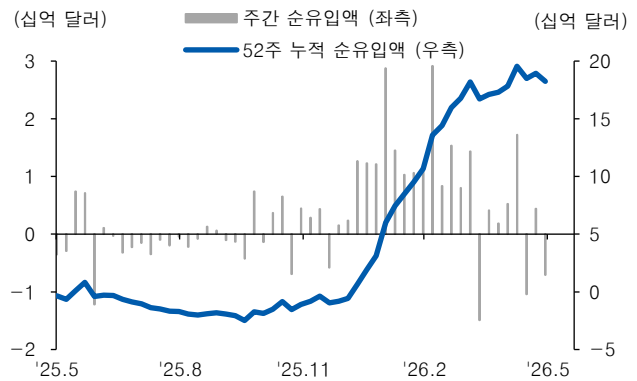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4. Energy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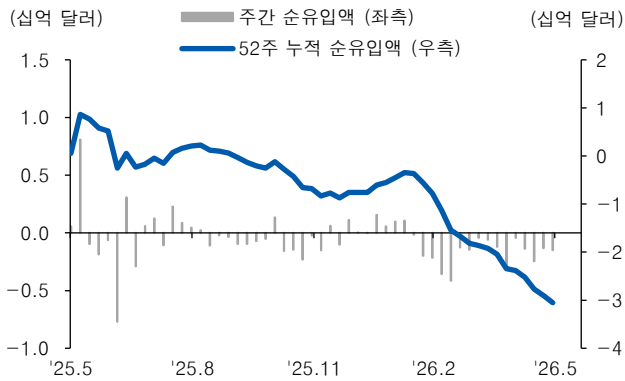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5. Energy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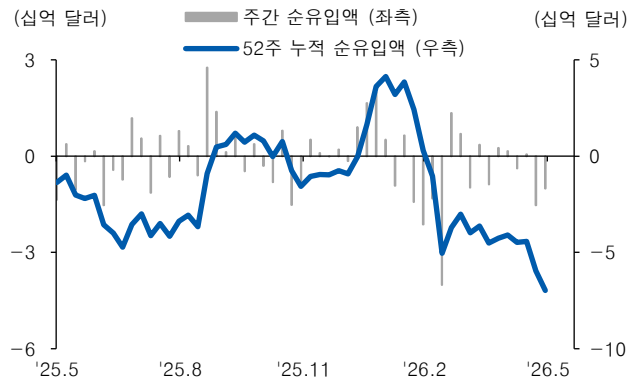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6. Financials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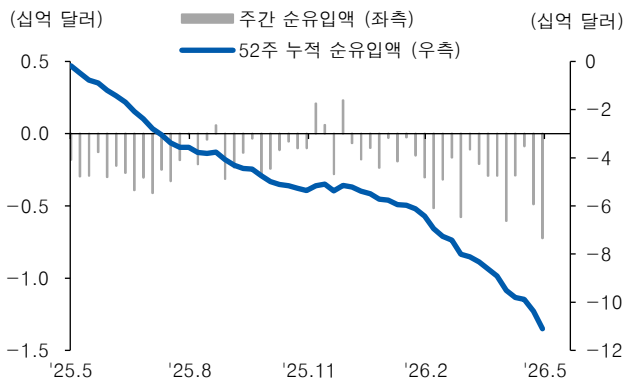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7. Financials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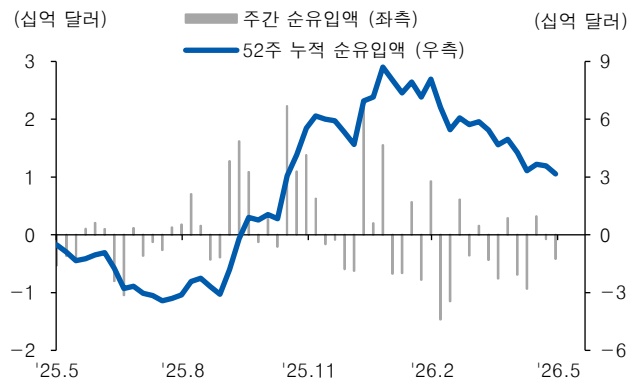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8. Healthcare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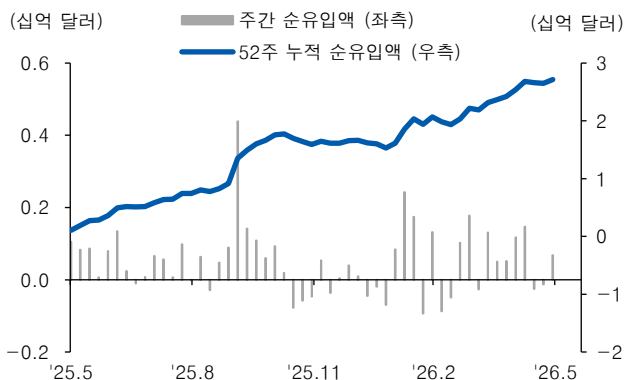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39. Healthcare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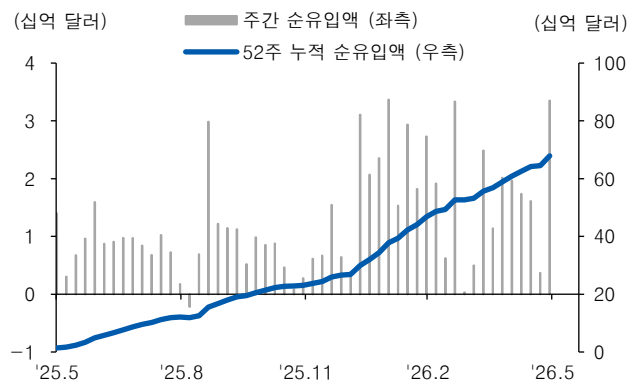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40. Industrials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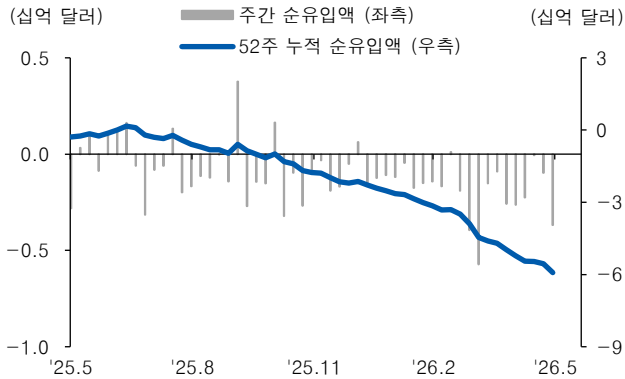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41. Industrials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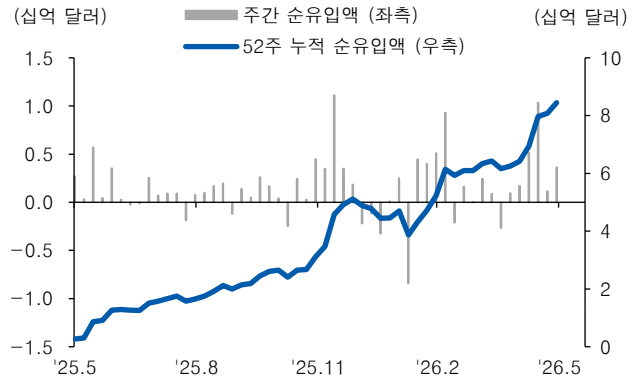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42. Real Estate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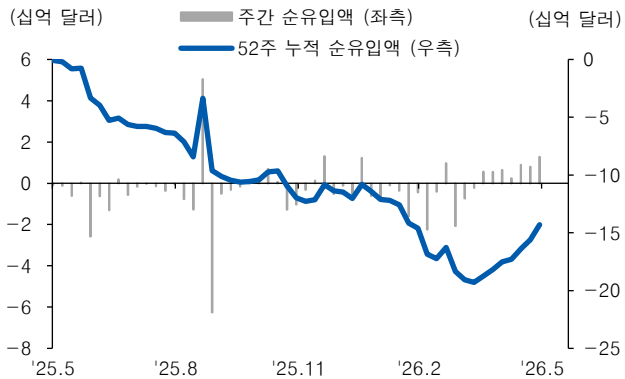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43. Real Estate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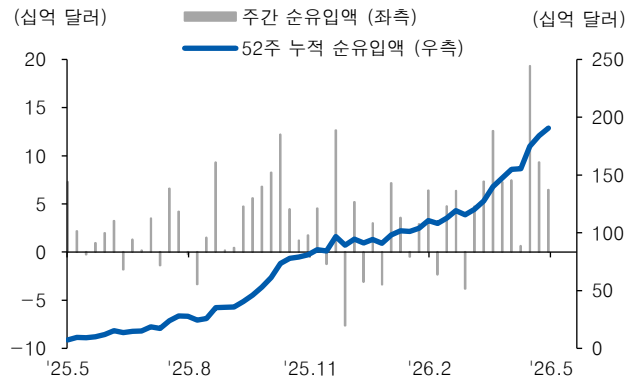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44. Tech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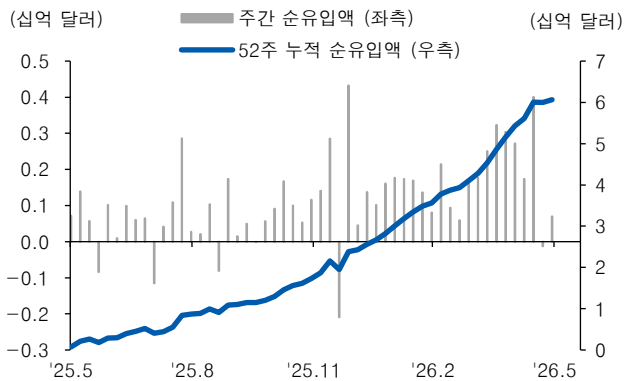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45. Tech 순유입 추이 -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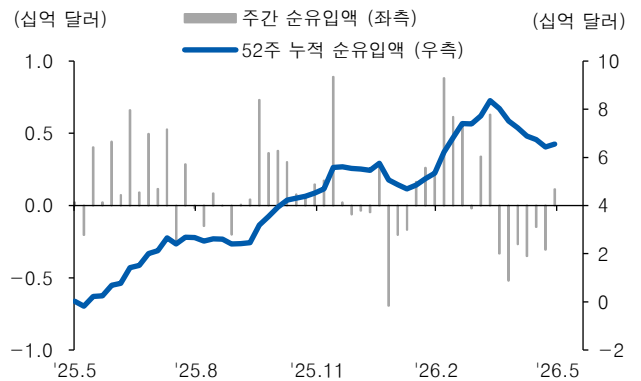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그림 46. Utilities 순유입 추이 - Open end Fund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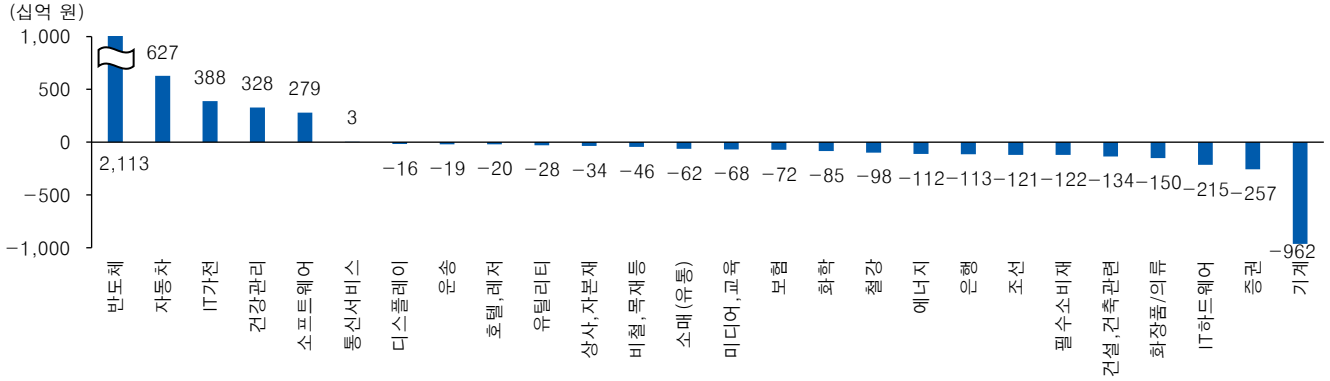
그림 47. Utilities 순유입 추이 - ETF



참고: Estimated Fund Level Net Flow(comprehensive), 해당 항목에 75% 이상 투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6-05-2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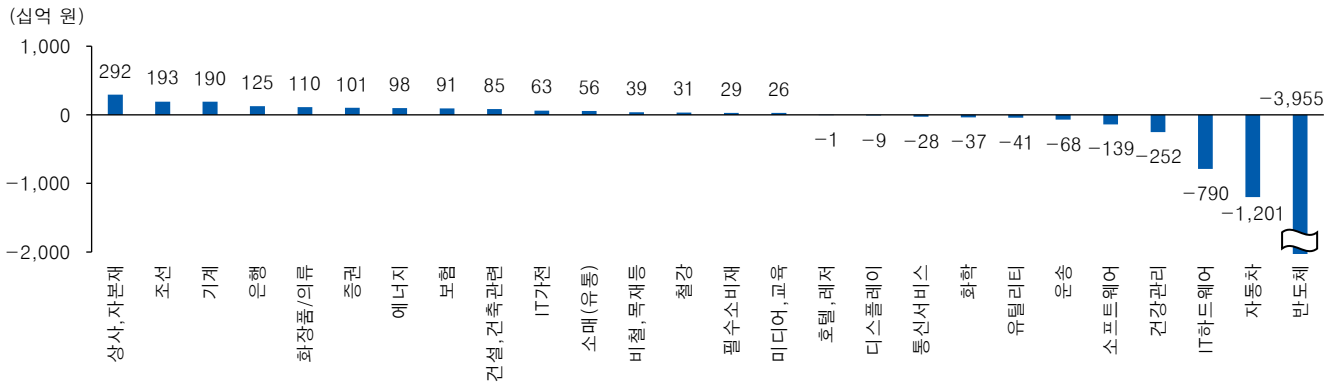
## 국내 주식시장 자금 동향

그림 48.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기관 주간 순매수 (5월 25일 ~ 5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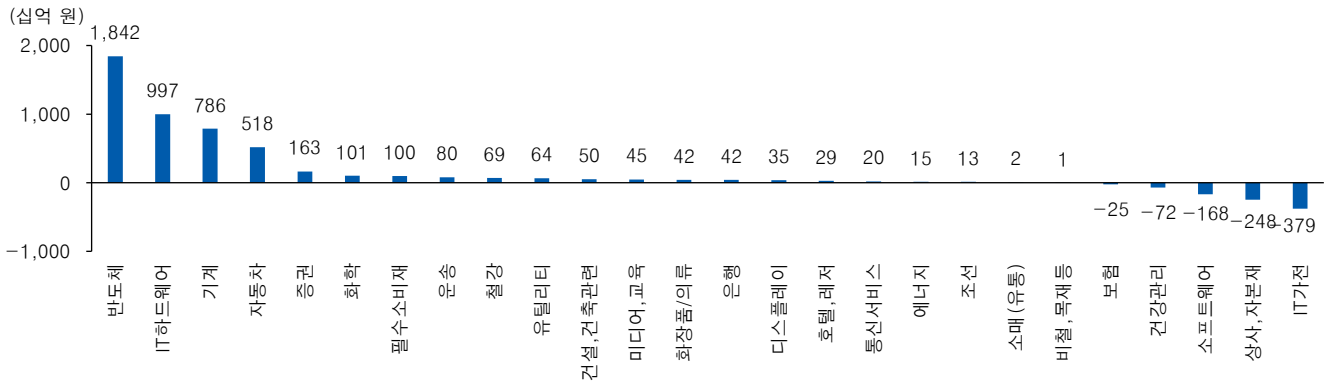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9.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외국인 주간 순매수 (5월 25일 ~ 5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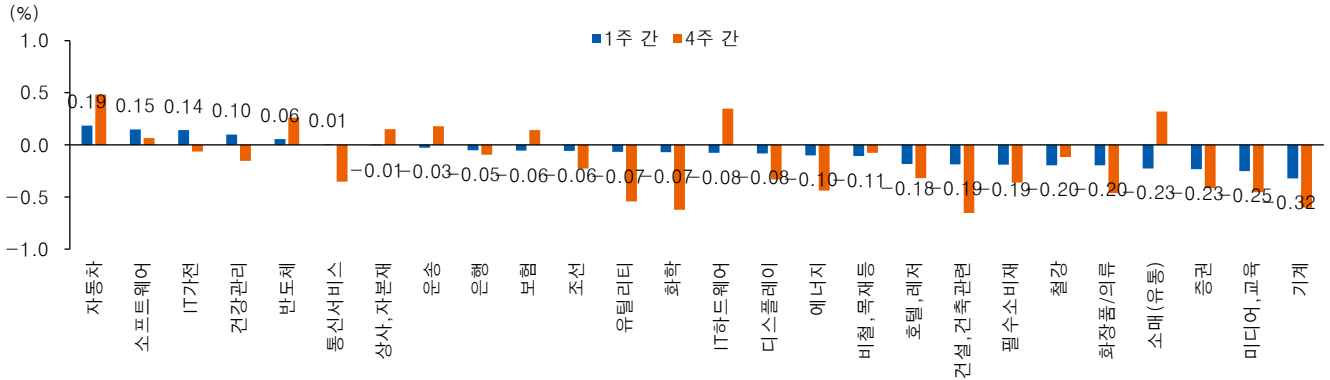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0.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개인 주간 순매수 (5월 25일 ~ 5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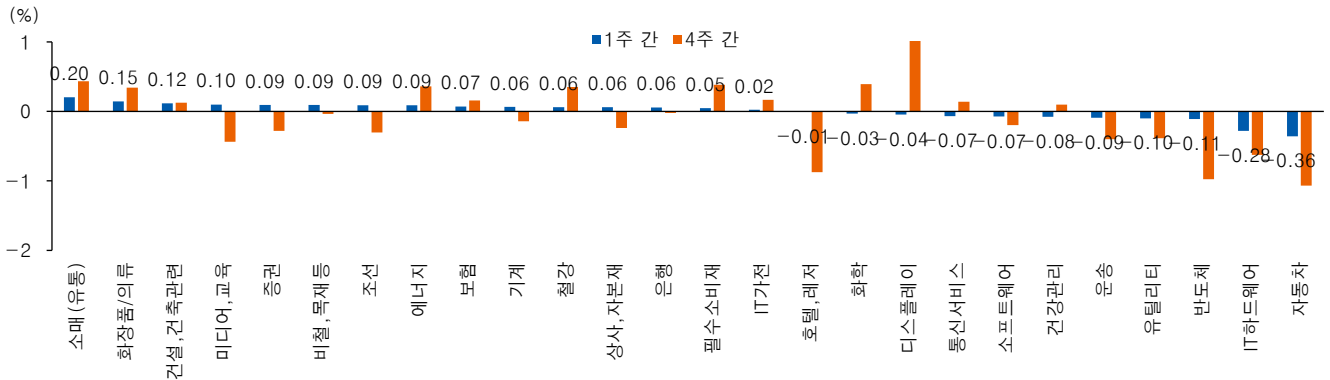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1.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기관 주간 순매수강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2. 주요 주체별 매매동향: 외국인 주간 순매수강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3. KOSPI 및 KOSDAQ 주간 수익률 및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5월 25일 ~ 5월 29일)

KOSPI	기관 순매수 순위		개인 순매수 순위		외국인 순매수 순위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	
상위 종목	1	삼성전자	2143.6	SK 하이닉스	1048.5	두산	155.0	LG 이노텍	68.8
	2	SK 하이닉스	1952.6	한미반도체	571.2	DB 하이텍	149.7	삼성전기	58.7
	3	현대모비스	396.4	LG 이노텍	556.3	삼성전기	147.5	삼성에스디에스	53.6
	4	현대차	294.3	현대모비스	517.3	현대로템	134.3	대양금속	49.4
	5	SK 스퀘어	244.9	효성중공업	195.2	한화오션	127.7	현대오토에버	47.5
	6	LG 전자	199.4	삼성에스디에스	140.1	삼성 SDI	126.7	아센디오	46.2
	7	NAVER	187.7	미래에셋증권	136.7	LS ELECTRIC	110.0	삼화콘덴서	46.2
	8	삼성 SDI	158.7	현대차	125.3	기아	109.0	LG 씨엔에스	36.8
	9	이수페타시스	93.4	HD 현대일렉트릭	115.9	LS	102.1	삼성공조	35.4
	10	한국항공우주	77.9	두산에너지빌리티	85.6	대한전선	80.7	SK 네트웍스	34.3
하위 종목	1	한미반도체	-473.2	삼성전자	-739.2	SK 하이닉스	-3013.1	티웨이홀딩스	-29.7
	2	DB 하이텍	-233.5	삼성 SDI	-288.0	삼성전자	-1388.1	KEC	-26.9
	3	삼성전기	-215.9	SK 스퀘어	-182.1	현대모비스	-961.4	SH 에너지화학	-24.9
	4	LS ELECTRIC	-192.6	NAVER	-179.2	LG 이노텍	-624.7	삼아알미늄	-24.5
	5	효성중공업	-138.6	두산	-78.6	현대차	-429.7	신성이엔지	-23.9
	6	LS	-137.7	LG 씨엔에스	-75.9	삼성에스디에스	-217.9	페이퍼코리아	-23.6
	7	미래에셋증권	-116.9	대한전선	-66.9	LG 전자	-198.8	비에이치	-22.3
	8	현대로템	-103.3	기아	-64.6	이수페타시스	-121.9	가온전선	-22.2
	9	두산	-72.5	현대오토에버	-57.6	LG	-105.3	선도전기	-22.1
	10	HD 현대일렉트릭	-70.6	LG 전자	-51.8	한미반도체	-101.6	동양고속	-21.3

KOSDAQ	기관 순매수 순위		개인 순매수 순위		외국인 순매수 순위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십억원)	종목명	(%)	
상위 종목	1	디앤디파마텍	141.8	주성엔지니어링	246.6	파두	98.6	나무기술	74.2
	2	알테오젠	112.9	대한광통신	137.7	이오테크닉스	86.7	한주라이트메탈	65.1
	3	펍트론	37.2	서진시스템	95.2	에코프로비엠	86.2	광진실업	44.0
	4	울릭스	31.4	리노공업	88.9	리노공업	78.6	포톤	40.1
	5	인텍플러스	28.9	HPSP	86.8	아주 IB 투자	58.3	코칩	35.8
	6	에이프릴바이오	21.2	원익 IPS	74.3	원익 IPS	57.4	디앤디파마텍	35.7
	7	리가캠바이오	18.8	레인보우로보틱스	60.7	ISC	46.0	네이처셀	35.1
	8	지아이이노베이션	16.8	제주반도체	53.4	스피어	39.9	노타	29.6
	9	성호전자	16.5	하나마이كرون	44.6	티씨케이	30.9	씨이랩	29.6
	10	저스팀	15.3	마키나락스	40.5	우리기술	30.8	바이젠셀	27.7
하위 종목	1	리노공업	-170.7	디앤디파마텍	-129.1	대한광통신	-136.2	비유테크놀러지	-96.9
	2	원익 IPS	-132.1	알테오젠	-95.6	주성엔지니어링	-124.9	이원컴포텍	-45.6
	3	이오테크닉스	-122.3	에코프로비엠	-66.4	서진시스템	-56.1	케이피항공산업	-43.8
	4	주성엔지니어링	-115.3	펍트론	-58.1	레인보우로보틱스	-51.3	동일스틸릭스	-38.1
	5	파두	-101.4	인텍플러스	-29.8	삼천당제약	-37.2	엠케이전자	-37.1
	6	HPSP	-85.6	우리기술	-28.7	코오롱티슈진	-32.2	씨엔플러스	-36.8
	7	제주반도체	-57.0	펠어비스	-20.3	리가캠바이오	-23.8	수성웹툰	-36.0
	8	하나마이كرون	-44.8	에이프릴바이오	-19.2	알테오젠	-21.3	티이엠씨	-35.4
	9	ISC	-44.3	스피어	-19.1	마키나락스	-18.6	케이지에이	-34.7
	10	솔브레인	-43.7	엘앤씨바이오	-18.4	울릭스	-18.3	알에프텍	-33.7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김용구)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